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사업주의 무관심과 작업자의 부주의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재해사례

2012. 9. 27.



구미소재 화학제품공장에서 불화수소를 탱크 로리에서 반응기로 이송 작업 중 불화수소가 누출되어 5명사망, 18명 부상, 인근지역 오염

2013. 1. 12.



상주소재 화학공장에서 염산저장탱크 배관이 파손되면서 방유제 내부로 염산이 유출되어, 눈과 반응하여 염화수소(HCl)가스가 발생됨

2013. 1. 15.



청주소재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탱크 상부 점검 후 내려오던 근로자가 추락하면서 배관이 파손되어 불산용액 2,500리터가 누출되고 1명이 부상당함

2013. 1. 28.



화성소재 반도체 공장의 불산공급탱크 배관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수리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독됨

2013. 2. 18.



청주소재 화학공장에서 MC(메틸렌클로라이드) 추출기 상부의 플랜지에서 MC증기가 누출되어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중독됨

2013. 3. 5.



구미소재 사업장에서 세정탑의 배풍기가 고장난 상태로 염소가스를 충전하던 중 작업자 2명이 중독됨



누출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고 그 절차에 따라 작업한다.
- 가스감지기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전에 누설 여부를 체크한다.
- 환기 상태, 국소배기장치 및 중화처리설비(세정탑 등)의 가동여부를 확인한다.(정지 시 경보)
- 호흡용 보호구 등 안전보호구를 비치한다.(양압식 공기호흡기, 내화학성 보호장갑, 내화학성 보호복 등)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현장에 비치하고, 직원에게 MSDS를 교육하여 사용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저장 및 취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다.
- 용기나 저장탱크 등 관련설비는 관계기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는다.
- 화학물질 보관장소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 가스용기에 보관 할 경우 전도되지 않도록 체인 등으로 고정하고 이동 시 보호캡을 씌워 이동 한다.
- 배관, 플랜지 및 밸브 등 누출위험 부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 가스 경보기는 주기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검교정을 실시한다.
- 인화성 물질과 이격시켜 보관한다.
- 화학물질 누출 시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화학물질 누출 위험장소는 감지 및 경보설비, 안전보호구 착용 필수

